

「鶴山閑言」研究

金 相 助*

目 次

1. 序 論
2. 辛敦復의 生涯와 「鶴山閑言」의 著作年代
 - 1) 辛敦復의 生涯
 - 2) 「鶴山閑言」의 著作年代
3. 「鶴山閑言」의 世界
 - 1) 奇異로 가득찬 世界
 - 2) 世界의 奇異에 어울리는 異人神仙
 - 3) 名分論的 現實認識
4. 結 論

1. 序 論

辛敦復은 「鶴山閑言」(이하 「한언」으로 줄임)의 저자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한언」은 야담사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야담집이다. 그것은 「한언」이 이후의 「溪西野譚」이나 「靑邱野談」 또는 「東野彙輯」과 같은 야담집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언」에 대한 연구는 曹喜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한언」 소재의 이야기 중 30여편 이상이 「청구야담」과 중복되는 것을 밝혀내고 「어우야담」-「학

* 국어국문학과 교수

산한언」-「기문총화」-「계서야담」-「청구야담」-「해동야서」-「동야취집」으로 야담집의 계보를 추정하였다.¹⁾ 이강옥은 조선후기 야담집의 史的存在樣相을 1. 작품세계의 형성과 서술시각의 다양화, 2. 서술시각의 유형화와 매너리즘, 3. 야담계 장르의 위축과 이율배반적 中人意識으로 정리하고 「한언」을 1항에다 자리매김하였다.²⁾ 한편 정명기는 「청구야담」의 전대문헌 수용을 「한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³⁾ 이렇게 본다면 「한언」에 대한 연구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제법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언」의 연구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편저자인 학산 신돈복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지 이루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언」의 저작 연대 추정에 커다란 착오가 야기되어 있다.⁴⁾ 본고에서는 「한언」의 편저자인 鶴山 辛敦復에 대한 전기적 검토를 간단히 하고 「한언」의 저작연대를 밝힌 후에 「한언」에 나타나 있는 사상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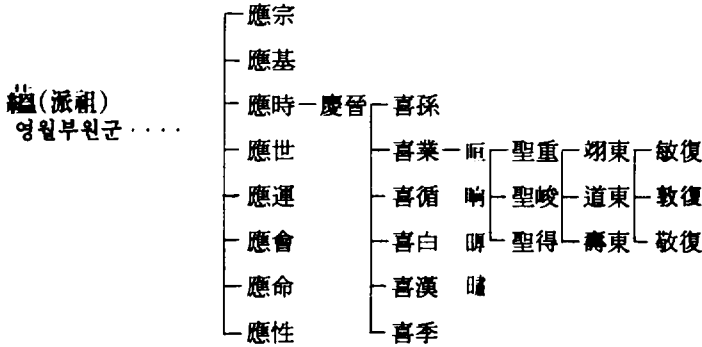
2. 辛敦復의 生涯와 「鶴山閑言」의 著作年代

1) 辛敦復의 生涯

辛敦復은 字가 仲厚, 號는 鶴山 또는 景軒⁵⁾이다. 그에 대한 전기적 사실은 그의 「학산한언」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한다면 기이할 정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심지어는 그가 숙종조의 학자라는 설도 있으나 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것조차도 특별한 검토를 거친 것은 아니다. 그의 생애에 대한 자료는 현재까지

-
- 1) 曹喜雄, 《朝鮮後期文獻說話의 研究》, (형설출판사, 1981) 31- 42면.
 - 2) 李康沃, 《朝鮮後期野談集 研究》-敘事體의 장르規定과 敘述視角類型設定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文學研究會, 1982.
 - 3) 정명기, <「靑邱野談」에 나타난 前代文獻受容 樣相研究> 《淵民學志》 제2집(淵民學會, 1994)
 - 4) 이에 대해서는 2장 2절에서 자세히 검토될 것이다.
 - 5) 그의 호는 현 학계에서 '鶴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족보에는 '景軒'만이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널리 알려진 '학산'을 사용하기로 한다.

발견된 것으로는 《靈山寧越辛氏族譜》 외에는 없는데, 이에 의하면 그는 1692 (숙종 18, 임신) 출생하였다. 족보를 통하여 확인된 그의 世系는 다음과 같다.



역시 족보에 의하면 그는 1715년(숙종 41, 을미) 2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진사를 하여 관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관운은 별로 좋지 않아서 奉事에 머물렀으며, 나중에 壽資憲同知中樞府事를 제수받는 정도였다. 1775년(영조 51, 을미)에는 回榜日을 맞아 임금이 특명을 내려 음악울 내리고 隱巖의 白麓 舊第에서 잔치를 베풀어주었다. 또 道臣에게 명하여 공이 거처하고 있던 白川 시골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⁶⁾ 학산은 1779년(정조 3, 기해) 87세를 일기로 졸하였다. 묘지는 開城府 馬沓村 案山 坐라고 족보에 밝혀져 있다. 학산의 전기에 대해서는 이 이상 자세하게 밝히기가 어렵다.

학산의 사승관계는 확실하게 밝힐 수가 없다. 그는 農巖 金昌協, 三淵 金昌翁 형제를 깊이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들과 사계의 연을 맺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외경심은 대단하여 농암 삼연의 作文 태도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학산』 2화-이하에서는 'O' 화로만 표시하기로 한다.)나 농암의

6) 이 기록은 실록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영조실록』 123권 영조 50년(甲午) 조(《조선왕조실록》 권44 477면)에 “辛酉 上御集慶堂 引見大臣備堂 小科 回榜人辛敦復命入侍 使地方官 衣資食物題給” 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1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

글이 우암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이야기를 수록하여 놓고 있다. (3화) 뿐만 아니라 삼연이 금강산에 머물다가 한양에 왔을 때 그와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화)

이와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그가 車天輅나 崔筮와 같은 인물을 대단히 낮게 평가한다는 것이다. 학산은 차천로에 대해서는 그의 시재가 세상에 드물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는 경박하고 狂蕩하다고 하여 세상에서 경망한 사람을 車天男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한다. (45화) 요컨대 학산은 차천로에 대하여 그의 시재는 인정하지만 사람됨됨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한다면 簡易 崔筮에 대해서는 몹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최입의 문은 사치하게 꾸며 범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으며, 시는 항상 솜씨가 교묘하고 뜻이 기이하고 웅장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드무니, 좋아하는 사람은 적고 싫어하는 사람은 많다. 이것이 어찌 문장을 짓는 본래의 뜻이겠는가.⁷⁾

최입의 시문이 지나치게 장식적이어서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최입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대명 외교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명나라에서도 명문장가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학산은 그의 글이 지나치게 장식적이라고 하면서 문장을 짓는 본래의 뜻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장유의 다음과 같은 평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공은) 어른이 되어서는 글을 지으면 고문으로 지었다. ……그가 지은 글은 뜻을 잘 나타내고 생각을 잘 표현하였으며 한 구절 한 글자가 모두 옛날 작자를 법으로 삼았다. 초고는 세번 네번 고치지 않으면 내놓지 않으니, 뜻을 지나치게 심오하게 하려 하다가 오히려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천박하지 않게 하였

7) 《韓國文獻說話全集》 8 (이하 《전집》으로 줄임), (東國大學校 韓國文學研究所編, 1981), 378면. 筮之文 務爲侈飾不凡 其爲詩 常欲寓巧 意奇崛 所以鮮天然 眞意 好者少 而不好者多 而豈文章之本旨哉

으며, 지나치게 기이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난삽한 경우도 있으나 범상하지가 않게 하였다. ……시도 강건한 맛이 있어 황진의 구법을 잘 터득하였다. ……말하는 사람들은 ‘공의 글은 기운은 괴외보다 못하지만 법도는 더 낮고 이치는 점필재보다 떨어지지만 말은 더 나오니 긴 것을 잘라 짧은 데에 이으면 세 사람을 나란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고 한다.⁸⁾

장유는 간의의 글이 뜻이 지나치게 깊어 오히려 선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천박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기이하여 오히려 난삽한 경우도 있으나 범상하지가 않다고 평하는데, 이것은 ‘문은 사치하게 꾸며 범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는 말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르다. 즉 장유는 범상하지 않게 하려다가 오히려 난삽한 경우까지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법도는 김수온보다 낮고 말은 김중직보다 낫다고 하면서 絶長續短하면 이들과 대등하게 평가 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산은 ‘이것이 어찌 문장을 짓는 본래의 뜻이겠는가.’라고 하여 글을 짓는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를 평가하는 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⁹⁾

2) 「鶴山閑言」의 著作年代

「한언」의 저작 연대는 지금까지 추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조희웅은 「한언」이 「청구야담」보다 한 세기 이전의 문헌이라고 하였다.¹⁰⁾ 그는 「계서야담」이 1833년부터 1842년 사이에, 「동야취집」이 1869년에 편찬되었으

8) 《簡易堂集》(景文社, 1981) 1면. 結髮操觚 卽爲古文詞……其爲文 刻意湛思 一句字皆繩墨古作者 草藁不三四易不出也 意過深而寧晦 毋或淺語 過奇而寧澁 毋或凡……詩律亦矯健 有致得黃陳句法……議者謂公之文 氣蓋於乖崖 而法勝之 理遜於龜山 而辭過之 截長續短 殆可以鼎立

9) 장유와 학산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학산의 문론에 대한 더 이상의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입의 글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은 장유와 같으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상반된다는 점에서 일단은 그가 최입과 같은 擬古文派의 글에 대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10) 조희웅, 앞의 책, 32면.

며 「청구야담」은 이들 중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¹¹⁾ 이것은 「한언」이 1840년에서 1860년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강옥은 “「학산한언」의 정확한 편찬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삼교만록」이 庚寅(1770)년에서 쫓巳(1773)년 사이에 지어졌는데 반해 「한언」의 작자 辛敎復이 肅宗朝의 학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언」이 「삼교」에 선행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교」(土)에는 ‘嘗見鶴山辛先生雜錄…’이라는 文句가 발견되는 바, 그 雜錄이라는 것이 비록 「한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미루어 보아 안석경이 「학산한언」을 읽어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¹²⁾고 추정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1) 「한언」의 저작 연대는 1840년에서 1860년대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설과 「삼교만록」보다 앞서 숙종조에 저술되었다는 상이한 설이 있으며, 2) 안석경이 「한언」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한언」의 저작 연대다. 여기에서는 「한언」에서 저작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제41화는 族兄 旌善郡守의 모부인이 여행을 많이 하여 전세의 선녀가 하강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내용의 이야기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계묘년 선조 文莊公의 延謚宴이 龍潭縣에서 있었는데 내가 참석하였다.”¹³⁾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의 문장공은 바로 辛應時(1532; 중종 37-1585; 선조 18)다. 그리고 학산 생전의 계묘년은 1723년 즉 경종 3년이다.¹⁴⁾

「한언」 제1화는 삼연이 금강산에서 한양에 왔을 때 학산이 그를 만나 고담준론을 나누었던 이야기다. 여기에서 학산은 이것이 戊戌年 仲夏의 일임을 이야기의 모두에서 밝히고 있다.¹⁵⁾ 김창흡의 생존 연대는 1653(효종 4)-1722(경

11) 위의 책, 16-42면.

12) 이강옥 앞의 글, 135면.

13) 《전집》 369면, 歲癸卯 先祖文莊公延謚宴 行於龍潭縣 余往焉

14) 참고로 살펴보면 신용시의 시호는 1706년(숙종 32)에 내려졌다. 즉 시호를 받고 곧바로 延謚宴이 열렸던 것이 아니다.

15) 《전집》 289면.

종 2)이다. 따라서 김창흡 생존 기간 중의 무술년은 1658년과 1718년(숙종 44)이다. 이 중 1658년은 삼연의 나이 겨우 6세 때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무술년은 1718년(숙종44)이 된다. 이 이야기는 그 뒤에 “그 십여년 뒤 삼연집이 나왔다.”¹⁶⁾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때는 1830년 무렵이 된다.

제33화는 신선이 된 文有采의 이야기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여러 仙跡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에 을묘년 윤4월 학산이 금강산 표훈사에 가서 신선이 된 문유채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와 기미년 겨울 洪百昌의 집에 가서 본 기록을 실어놓고 있다.¹⁷⁾ 여기에서의 을묘년은 1735년 즉 영조 11년이며, 기미년은 그로부터 3년 후인 영조 15년, 1739년이다. 제70화도 역시 기묘년의 일이다. 즉 이 해에 학산이 淳昌에서 先世의 문집을 간행하는데 교정 보는 일로 순창에 갔다는 것이다.

제89화는 호랑이에게 물려갔다가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인데, 경신년 봄의 일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경신년은 1740년 즉 영조 16년이다.

제17화는 전라도 흥덕의 효자 오준의 이야기다. 오준은 효행이 지극하였는데 그의 사후 사당을 지어 제사하였다. 그후 “지금의 임금이 즉위하자 院宇의 폐단을 근심하여 갑오년 이후의 祠宇를 철거하도록 하였는데, 흥덕의 유생들이 오준의 효행을 들어 알리니 임금이 이것만은 철거하지 못하도록 명하였다.”¹⁸⁾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금상은 영조이며 사우철폐령은 동왕 17년의 일로 이에 대하여 『增補文獻備考』에서는 “갑오년 이후 조정에 알리지 않고 사사로이 祠宇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儒賢大臣을 막론하고 모두 철거하라.” 라고 한 왕명을 기록하고 있다.

제7화는 학산이 『瀾府記聞』을 읽어보니 중국인 王興이 통군정에 왕기가 서려 있다고 하였는데, 임란시 과연 임금이 의주로 파천을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승정후 경술년 내(의주인 최태보)가 瀾禱(용만

16) 《전집》 292면. 其後十餘年 三淵集出見

17) 《전집》 348면.

18) 《전집》 308면. 今上卽昨 深患近來院宇之弊 命撤甲午以後祠宇 興德儒生列君孝行以聞 上命獨不毀 亦曠典也

비장?)로 節使를 따라 연경에 갔다¹⁹⁾는 기록이 보인다. ‘승정후경술’은 바로 1670(현종 11)이다. 학산은 “이 책은 崔台甫가 지었으며, 경술년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이다.”²⁰⁾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해는 1742년(영조 18)이 된다.

제48화는 겸재 정선의 그림이 뛰어났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에는 “겸재는 수명이 84세에 이르렀으며 관작도 뇌금에 이르렀다. 자손도 또한 많으니 가히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만 하다.”²¹⁾고 한 말이 있다. 겸재는 1676(숙종 2)년에 출생하여 1759(영조 35)년에 죽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1759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상 다소 번거로운 감이 있지만 『한언』의 이야기 기록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았는데, 그 기간은 1723년(경종 3)-1759(영조 35)년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언』의 이야기 배열 순서는 연대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언』이 이야기가 쓰여진 순서대로 편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언』은 학산이 젊은 시절부터 노년기에 들어선 1759년(영조 35)년 사이에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그 후부터 학산이 죽은 해인 1779년(정조3) 사이의 언제쯤 편찬하여 이루어놓은 책인 것이다.

『한언』의 저작 연대를 이렇게 밝혀놓고 보면 안석경이 『삼교만록』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²²⁾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약간의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한언』이 신돈복 노년의 작품인데, 학산이 안석경보다 나중까지 살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삼교만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학산선생의 잠록을 보니 신류와 배시옥이 배와 군사를 거느리고 청나라

19) 《전집》 296면, 崇禎後庚戌歲 余以灣裨 陪節使赴燕

20) 《전집》 297면, 此台甫之所作 而庚戌距今七十二年矣

21) 《전집》 383면, 謙齋壽至八十四 爵至腦金

22) 李明學은 『삼교만록』을 1770년부터 1773년까지의 저작으로 밝히고 있다.

(『삼교만록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1982)

의 청을 들어 영귀탑에 가서 차한과 싸워 크게 이긴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잃어버렸다.²³⁾

안석경은 그러면서 이에 대하여 橫城의 趙晦甫에게서 들은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바로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동진하던 러시아군을 저지한 이른바 「나선정벌」이다. 「삼교만록」에서는 「학산한언」이라는 책명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학산선생의 잡록'이 나올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잡록이 바로 「한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현전하는 「한언」에는 이 '나선정벌'에 관한 기사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잡록'은 과연 어떠한 책인가 하는 점이다. 현전하는 학산의 저작은 아직까지는 「한언」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학산의 다른 저작물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또는 같은 책일 가능성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발견된 후에나 확인될 수 있는 문제다.

3. 「鶴山閑言」의 世界

1) 奇異로 가득찬 世界

「한언」에 나타나는 세계는 奇異한 힘, 기이한 존재로 가득 차 있다. 一目 國, 穿胸國이 있는가 하면 (23화) 죽은 사람이 다른 집에 환생하기도 한다. (62화) 「한언」에서는 이러한 기이가 모두 실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나라의 문사가 규염궐전을 지었는데…… 해동 땅에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가 있고 송악산 아래에 부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고구려의 正東에 속한다. 이것이 東部다. 唐史에 고구려 동부대인 천개소문은 성품이 흉폭한데 스스로 물에서 나와 궁중에 들어가 국왕을 시해하고 드디어 국정을 잡았다고 하였으니 고구

23) 《삼교집》 亞細亞文化社 1986) 下, 354쪽, 當見鶴山先生雜錄 記申懶襄是都舟師 赴清虜之請 而入靈龜塔 戰車漢大捷事 而忘之矣

려 사람은 아니다. 그 전 끝 부분에 한 해적이 부소국에 들어가 그 왕을 죽였는데 이제 나라가 평정되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분명 소문이 수군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들어가 먼저 부소를 점거하고 스스로 동부대인이라고 칭하고 국정을 장악한 것으로, 그 지역이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고구려를 부소국이라고 하고 왕을 죽이고 국정을 전단하게 된 것을 나라가 평정되었다고 한 것이다. ……소문은 스스로 물에서 나왔다고 하여 泉으로 성을 삼고 부소에 들어갔다고 하여 이름을 蘇文이라 하였으니 소문이 규염객임을 더욱 알 수 있다.”²⁴⁾

「규염객전」은 당나라 때 쓰여진 기이한 이야기다. 그러나 학산은 이것을 가공의 이야기로 보지 않고 규염객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것을 唐史를 인용하면서 자세히 고증을 하고 있다. “기이하지만 사승에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으니 허실을 알 수가 없다”²⁵⁾는 말이 규염객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단지 「규염객전」에 나와 있는 규염객의 행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의 끝에 ‘소문은 스스로 물에서 나왔다고 하여 泉을 성으로 삼았으며 부소국에 들어갔다고 하여 소문으로 이름을 삼았으니 소문이 규염객인 것을 더욱 더 알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一目國, 穿胸國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모두 두 눈이 있는데 저들만은 한 눈만이 있으니 이것은 하늘의 편벽한 기운으로 생겨난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다.”²⁶⁾고 하면서, 그들은 “형체가 이미 편벽한 기운을 타고 났으니 마음이 어찌 온전한 기운을 받았겠는가.”²⁷⁾라 하여 그러한 기이가 이 세계에 실재

24) 《전집》 393-394면. 唐文士作규염객傳……獨海東一域有羅麗濟三國 而松嶽山下之地 稱爲扶蘇 屬高麗在正東 此當爲東部耳 唐史謂高麗東部大人泉蓋蘇文性凶暴 自稱出於水中 入宮弑國王 遂執國政 蓋非東國人也 其傳末略曰 有水賊入扶蘇國 殺其王 今國已定矣 是必蘇文 以舟師渡海入高麗 先據扶蘇 自稱東部大人而專其國遠地接聞 遂謂扶蘇國 而以殺王傳(專의 오자로 보임)國 謂之國已定矣 蘇文自謂生水中 故以泉爲姓 入扶蘇 故名曰蘇文 尤可知蘇文之爲虬髯

25) 393면. 其事甚奇 而其蹟不少著於史乘 虛實未可知也

26) 《전집》 317-318면. 人皆兩目 而彼獨一目 是乃天之偏氣之所生也 推此 可知其他

27) 위와 같은 곳. 形既得偏氣 心亦焉得其全氣

함을 확신하고 있다.

『한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이한 힘 또는 현상은 귀신과 명당의 존재라 할 것이다.

대저 사람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죽더라도 흩어지지 않다가 생각하는 것이 절실하고 지극하면 감응하여 나타난다. 이런 것은 옛날부터 많았으니 괴이할 것이 없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도 단단하게 엮히는 것이니 본래 기록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幽明의 이치가 민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이 말은 淳昌의 기생 粉英이 평생의 정인이었던 井邑 權益興의 혼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 끝에 학산이 붙여놓은 이야기다. 학산은 사람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귀신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산은 正論을 방자하여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를 모르는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幽明의 이치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언』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귀신 이야기도 황당한 이야기가 아닌 실재하는 유계에 살고 있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한언』에서는 귀신이 본질적으로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²⁹⁾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죽더라도 흩어지지 않다가 생각하는 것이 절실하고 지극하면 감응하여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귀신도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명계에서 맺은 관계는 유계에 가서도 단절되지 않는다. 그들은 집안에 이변이 일어날 것을 후손에게 알려주거나 자손이 가난하자 친구에게 나타나 玉과 寶刀를 찾아주게 하여 가난을 면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66화) 祭物을 불결하게

28) 《전집》 444면. 夫人心有所結 則雖死而猶不散 思想切至 則亦有所感召 古來如此者多 无足怪矣 男女相悅 結於生死 本不足記 於此足見幽明之理 斯不可混之也

29) 그렇기 때문에 기이의 원천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본고에서 『한언』의 세계를 초월적으로 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 종을 벌하고 龔室에 든 도둑을 기절시키고(73화),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사람의 운명을 알려주는(75화) 등 제한적이어기는 하지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귀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언」에서는 인간도 귀신에게 일정한 정도나마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제74화는 朴信圭가 영남백 때 성주에서 星山君의 사당을 헐었던 이야기인데, 성산군은 고을 사람들의 제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귀신이면서도 자신의 사당을 허는 박신규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여 박공의 제사를 지내야 자신이 흉흉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나약한 면모는 78화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淫神에게로 한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신에 대한 경배에 냉소적이며(74화), 그러한 귀신을 쫓는 방법까지도 소개하고 있다. (67화)

「한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명당 이야기도 세계의 기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학산은 역사책을 살펴보면 湯임금은 박에서, 한 高祖 曹操 朱溫은 모두 沛에서 태어났으며, 項羽와 明의 高皇后는 宿遷人, 劉裕 徐知浩는 彭城人, 明太祖는 濠州人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백리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주나라 문왕과 隋文帝 唐高祖太宗은 모두 岐에서 나고, 한 武帝 明世宗은 남양에서, 晉武帝 宋太祖는 낙양에서 태어났으니 제왕이 태어나는 곳은 후에 다시 제왕이 나오고 그를 보필할 사람이 아울러 나온다는 것이다.³⁰⁾

이러한 곳이 학산이 말하는 '산천수이지지'이며, 흔히 말하는 명당일 터다. 그런데 학산은 이 말 뒤에 주목할 만한 말을 덧붙여 놓고 있다.

이것이 어찌 조상의 묘자리가 모두 명당 명혈이어서 이처럼 자손들의 복록이 일시에 융성한 것이겠는가. 이것은 산천이 뻗어나고 기이한 곳에 불과하다. 왕성한 기운이 돌면 같은 운명을 타고 같은 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운을 타고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밭의 기름진 곳에서 비를 얻어 발흥하는 것은 모두 좋은 곡식인 것과 같다. 이러한 곳은 온통 도움이 가까운 곳이니 길하고 상

30) 《전집》, 295면.

서로운 기운이 있는 곳이다. 어찌 양택 음택으로 좋고 나쁜 곳이 있겠는가.³¹⁾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명당은 어떤 초월적인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단지 산천이 빼어나 왕성한 기운이 돌면 위인이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름진 밭에서 곡식이 잘 자라는 정도 이상이 아니다.³²⁾

그렇다면 학산은 명당 명혈을 부정하는가 하는 점인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地氣가 좋은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아도 명당의 실재를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63화)

부자께서 괴력난신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지간에는 없는 것이 없다. 단지 익숙하게 보았던 것은 일상적이고 대하는 것이 드물면 괴이한 것이다.³³⁾

이 말은 세계의 기이에 대한 「한언」의 견해를 결론적으로 보여준다. 세상에 괴력난신이 실재한다. 학산은 이점은 공자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한다. 단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뿐이다. 세상에는 기이한 존재나 기이한 힘이 많으며, 이런 점에서 「한언」에 실려 있는 많은 괴력난신에 대한 이야기도

31) 《전집》 295-296면. 此豈其人之祖先墳山 蓋是名龍奇穴 而子孫福祿 一時隆盛如此哉 是不過山川秀異之地 旺氣回薄 則茲縣命世之人 而同時并生者 莫不乘運而起 比如雨田膏沃之處 得雨勃興者 悉嘉禾也 若此地者 一境旁近都 是吉祥之氣 夫何論其間陽居陰宅之或佳或不佳也

32) 위의 인용문에서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학산이 '山川秀異之地'와 名堂 名穴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밭의 기름진 곳에서 비를 얻어 발흥하는 것은 모두 좋은 곡식인 것과 같다. 이러한 곳은 온통 도움이 가까운 곳이니 길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곳이다. 어찌 (그 중에 특별한 지점이) 양택 음택으로 좋고 나쁜 곳이 있겠는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산천수 이지지가' '陽居陰宅의 좋은 곳과 나쁜 곳' 즉 흔히 명당 명혈이라고 하는 곳보다는 廣域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33) 《전집》 306면. 夫子不語怪力亂神 非謂其非理也 蓋以其不足訓學者也 天地之間 無所不有 特其習見者爲常 罕接者爲怪

드물어서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지 익숙하게 대하면 조금도 기이하지 않은 실재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언』에서는 귀신이나 명당과 같은 기이한 이야기를 많이 수록하여 익숙하게 대하여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2) 世界의 奇異에 어울리는 異人 神仙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언』은 세계의 기이를 주목하고 믿지만 이것을 초월적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다. 모든 기이한 것은 익숙하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초월적이지 않으며, 산천수이지지인 명당도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언』 소재의 명당 이야기는 여타의 야담집에 나오는 이야기들과는 성질이 약간 다르다. 즉 여타의 야담집 소재의 이야기들이 명당을 만나 발복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데 비하여 『한언』의 그것은 주로 명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찾아지는가 하는 등의 이야기이다. 이것은 학산이 명당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익숙한 것으로 설명하려 했던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한언』에서는 이것을 일상적인 능력을 벗어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인간 즉 이인이나 신선을 등장시켜 세계의 기이에 대응시킨다. 한 예를 보기로 한다.

사람들은 모두 산점의 길흉이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한다. 광주의 점술사 손필웅은 역시 이름이 난 사람인데 말하기를 ‘무릇 혼인과 묘지를 잡는 것은 모두 (바라는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여자와 혼인을 하고 어느 산에 장사를 지내는 것은 모두 연분이 있는 것이어서 인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점을 쳐보면) 그 점은 반드시 길하다고 나오고 반드시 길하다고 한 연후에 그 혼인이 이루어지고 그 산에 장사를 지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공의 산이 비록 흉하지만 그 점이 길하게 나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진실로 견해가 있는 것이다.³⁴⁾

34) 《전집》 484면. 人皆謂山占吉凶 有不足信 廣州卜者孫必雄 亦得名者 曰 凡婚姻及山地之占 皆不可爲也 凡人之將娶是女 將葬是山 皆已有緣分 不容人力 故其

尚書 朴權丁은 內艱을 당하자 많은 복채를 지불하면서 유명한 술사인 鄭夏圭에게 명당을 찾아 달라 하여, 한 곳을 점지받았다. 그곳은 다른 地師에게서도 명당으로 감식되었으나 사실은 흉혈이었다. 위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그렇게 예저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산점을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지만 그것이 명당을 부정하는 소치는 결코 아니다. 명당이나 혼인은 연분이 있기 때문에 점을 쳐 보아도 길흉이 밝혀지지 않는다. 연분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명당을 찾는 노력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당대의 名地師 두 명이 명혈로 지목한 곳이 흉혈이었다는 것은 바로 인연이 닿지 않은 까닭이다. 물론 이것은 卜術師의 말이지만 학산은 이것이 실로 견해가 있는 것이라고 적극 동의한다. 이것은 지사의 입을 통하여 지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당을 찾는 행위는 쓸 데 없는 노력에 불과하며 地師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학산은 이른바 南師古의 十勝保身之地에 대하여 '赫岩의 말은 믿을 수가 있다.'고 하여 긍정하여 일견 모순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준다.

무릇 전세의 도참서나 비록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단지 술사들이 지은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앞날의 일을 아는 神人 異士들이 있으니, 伊川의 이른바 왕자는 진실로 미래의 일을 안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³⁵⁾

전세의 도참비록은 술사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 남사고와 같이 미래사를 아는 神人 異士에 의하여 지어졌는데 이들이야말로 앞날의 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만이 세계의 기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언」에서 세계의 기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대표적인 존

占必吉 必吉然後 此婚可成 此山可葬 故朴公之山雖凶 其占之吉 有不可誣者 此誠有見之言也

35) 《전집》 479. 赫岩之言 信哉

36) 《전집》 297면. 凡前世圖讖秘錄 多不知其所自出 此非特術士所爲 亦有世有神人 異士 自能前知 如伊川所謂王子眞能預知未來事 是也

재는 신선이라 할 수 있다. 『한언』에서 단일 테마로 신선에 대한 이야기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없다. 즉 『한언』 소재의 총 100편의 이야기 중에서 신선에 대한 이야기는 무려 15편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³⁷⁾ 뿐만 아니라 여타의 이야기들이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과 달리 신선 이야기들은 『한언』의 일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온다. 앞에서 보았듯이 『한언』은 한 때 집중적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수집된 이야기를 모아서 이루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신선 이야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학산이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수집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⁸⁾

세계의 기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신선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의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세속을 떠나 도가적 양생법을 연마하여 굶주림과 추위 더위를 느끼지 않게 되고 축지법 등을 익혀 후천적으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벽곡법을 행하여 10여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한번 먹으면 5-6말을 먹었다. 걷는 것은 나르는 것 같아 하루에 4백리를 갔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홀쭉한 한벌만 입고서도 추위와 더위를 느끼지 않았다.³⁹⁾

37) 제26화에서부터 40화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26화의 薛生은 엄밀하게 보면 신선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세속을 떠나 은둔한 사람의 이야기로 앞의 이야기와 구분되고 뒤에 계속해서 신선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여기에 넣었다. (참고로 살펴보면 『靑邱野談』에는 설생이 신선으로 나타난다.) 또 41화는 신선은 아니지만 학산의 祖母가 90까지 살면서 관동을 두루 유람하였으니 진실로 적강한 女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이야기까지를 본다면 16편에 이른다.

38) 한가지 흥미있는 것은 학산은 佛僧과 신선을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27화, 28화, 31화, 39화에 나오는 중들이 바로 그들인데, 이들은 佛道가 높은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역에 밝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있거나(27화), 축지술을 익히고(28화) 金丹術을 익혔으며(31화) 심지어는 실존했던 의상대사도 수명을 연장하여 수백년을 사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39화) 뿐만 아니라 『해동전도록』도 인묘조 한 중에게서 나온 책이다. (38화)

39) 《전집》 346-347면. 行辟穀法 不食十餘日 一食輒盡五六升 行步如飛 日行四百里 冬夏一單衣 不知寒暑

그리하여 신선은 수명도 보통의 인간보다 길어 수백년을 살기도 한다.

『한언』의 신선 이야기는 간략한 朝鮮神仙史라 할 수 있다. 제38화는 인묘조 한 중으로부터 발견되었다고 하는 『海東傳道錄』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초기 신선사를 약술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당 개성년간 신라인 崔承祐 金可紀와 僧 慈惠가 당에 유학갔다가 종남산에서 申元之를 통하여 鍾離將軍을 만나 해동에서 8백년 뒤에 도교가 성행하고 불교가 쇠하리라는 말을 듣고 책과 口訣을 받아 선술을 연마하여 귀국하다가 (가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난을 당하여 종리서를 보니 우리나라는 8백년 후 도교가 성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伯陽參同契』 『黃庭經』 『龍虎經』 『清淨心法經』을 주어 후세에 전하도록 하였다.

귀국 후 최승우는 崔致遠. 李清에게 술법을 전하고, 이청은 僧 明法에게, 명법은 上洛君 權淸에게 선술을 전한다. 상락군은 자혜의 제자 明悟和尚을 만나 도를 연마하고 金孤雲으로 개명한다. 한편 원나라에서 온 설賢이 매월당을 가르친다. 매월당은 『天道劔法鍊磨眞訣』은 洪裕山에게, 『玉函記』의 『內丹之要』는 鄭希良에게, 『參同龍虎秘旨』는 尹君平에게 전수하였다. 윤공은 이천의 교생 郭致虛에게, 정공은 승 大珠를 거쳐 鄭렴 朴枝華에게 전해졌다가 끊겼다. 홍공의 도는 妙觀 張世美를 거쳐 姜實千에게 전해지고 강은 張道觀에게 전하다. 이 뒤에 학산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황할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 뒤의 신선 이야기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成倪이 만난 신선, 花潭이 지리산에서 만난 이인, 중종 때의 남주, 北窓 鄭謙, 진사 李光浩, 光海君 때의 薛生, 태당이 만난 異僧 등과, 아산의 洪僮가 만난 이승, 충주의 진사 金羲가 말한 진봉사의 이승, 文有采, 金世麻, 운봉 진사 安克權이 만난 李季江 등 학산과 당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한언』 소재의 신선 이야기는 말하자면 『해동전도록』의 보유 또는 그 이후의 조선신선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아무리 소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관심과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학산이 신선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3) 名分論的 現實認識

「한언」에서 세계의 기이와 이에 어울릴만 한 이인 신선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나면 남는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다.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 몇편, 효행담과 노비 이야기 그리고 몇 편의 사대부 이야기가 있는 정도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근처에는 철저한 유학적 명분론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애초부터 사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나 유학적 윤리관에 근거하고 있는 孝行談이나 忠僕談 말고도 推奴談(61화) 또는 노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답을 받는 이야기 등도 예외는 아니며, 심지어는 復讐譚에까지도 작용한다.

仁同의 한 무인이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점을 쳤더니 虎患의 점괘가 나왔다. 그는 과거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술사가 틀림없이 급제할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 보기를 권하였다. 이에 따라 무인은 과거 길에 나섰다가 虎狼이라는 산적에게 잡힌다. 호랑은 자신이 무변 집안의 종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모친을 죽인 원수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가 이를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꾼다.

“주인이 종을 죽였다고 하여 종이 어찌 감히 복수를 하겠습니까. 다만 마음에 맺혀있는 것을 한번 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목에 칼을 겨누고 뺨박을 가하니 비록 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은 풀립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주인을 능멸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죄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소인은 이제 주인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다만 주인의 목에 뺨박을 가하였으니 어찌 다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칼을 빼어 자결을 하여 땅에 쓰러졌다.”⁴⁰⁾

이 말은 살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나오던 호랑이 할 말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전이 해야 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후회하고 있다는 말까지도 자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유학적 主

40) 《전집》 312-313면. 主殺奴婢 爲奴何敢報也 願此結在心曲 思欲一洗 今既指主之項 擬以白刃 雖未相害 志可以少伸矣 以奴復主 至於此地 罪亦難赦 小人今死主前……但奴指主項 而豈復爲奴也 遽引劍自決 仆于地

從의 윤리를 말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지나친 유학적 윤리의식의 결과 이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지리멸렬한 느낌을 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학적 윤리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경우에도 기록자는 명분론으로 論斷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남편을 바꾸어 따르는 것은 여인의 더러운 행실이며, 다른 사람의 침을 훔치는 것은 선비의 좋지 못한 행실이니 진실로 군자가 말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원망이 극에 달하고 사정이 어려운 데서 나왔으며 일이 우연스럽게 이루어졌으니, 천척의 일은 허물할 수 없으며 무부는 더욱 책망할 수 없다. 그러나 심덕이 있는 자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끝내 잘못된 보답을 받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 이것은 취할 만 하다.⁴¹⁾

봉산의 한 무관이 벼슬을 사러 서울에 와 사기를 당하고 죽기 위하여 남의 집에 들어가 여인을 겁탈하려 한다. 역관의 첩이었던 그 여인은 그러나 오히려 그에게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 같이 살자고 한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그녀의 재산으로 벼슬도 사서 행복하게 산다. 이 이야기에서 여인이나 무관의 일은 유학적 윤리관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학산은 그들의 불륜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용인하고 '심덕이 있는 자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끝내 잘못된 보답을 받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여 그들의 행실을 비판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善人善果의 대의명분에 따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²⁾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투철한 崇明意識이다. 『한언』에서는 명·청의 교체는

41) 《전집》 425면. 改從他夫 女之醜德 竊取人妾 士之惡行 固君子之所不道 然此兩人者 皆出於冤極情盛 事成於偶然 賤妾不足咎 武夫无可責耳 然有心德者 不惡終受報 미혹自然之理也 是則可取也

42) 물론 이러한 식의 건강부회는 『한언』 특유의 것이 아니라 전대의 稗說類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위의 말은 일종의 둔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이러한 건강부회가 유학적 명분론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멸망은 “비록 강태공이나 제갈공명 같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하여도 어쩔 수 없는”⁴³⁾ 일이다. 그러면서도 「한언」에서는 대부분의 조선조 유학자들과 같이 이 사실을 몹시 안타까워한다.

송정황제께서는 인자하고 공순하며 검소하였으며 지치에 뜻을 두었으나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어찌 비통함을 감당하겠는가. 그 화는 오로지 조정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호라! 나라에 사람다운 사람이 없으면, 원기가 다 삭아 온갖 병이 일어나면 만금이 나가는 좋은 약이라도 꼭 죽을 사람을 살려 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앞 수레가 뒤집어지는 것이 어찌 뒷 수레의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⁴⁴⁾

학산은 망국의 군주인 송정을 慈仁恭儉하며 지치에 뜻을 두었다고 극찬하며 나라가 망한 원인을 신하들에게 돌린다. 즉 魏忠賢이 국정을 오로지하여 현인들을 모두 죽여 임금 주변에는 공정하고 충직한 신하가 없게 되고, 마침내는 賊兵이 가까이 오자 아무도 적을 막을 계책을 내지 못하여 황제가 자신은 본래 나라를 망친 임금이 아니지만 여러 신하들은 모두 나라를 망친 신하라는 탄식이 나오게 하였다는 것이다. (11화)

학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명의 부흥 가능성까지 말한다.

중국이 오랑캐 땅이 된지가 백년이나 되었으나 만약 황명의 후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와 한번 외치면 지금은 비록 (명나라가) 망한지 백년 후지만 반드시 바람이 움직이고 구름이 모여드는 것 같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고로 나라가 망한지 백년이 지나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천하의 일은 한가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유는 한나라 초원왕 교의 후손이니 태상왕의 후예요, 원나라 순제는 송 덕호제의 후손으로 대대로 사막에서 살았다. 이에 대하여 史臣은 태조가 인후하였던 보답이라고까지 말한다.

43) 《전집》 392-393면. 雖有呂葛之才 固莫之何矣

44) 《전집》 299-301면. 崇禎皇帝 慈仁恭儉 有志致治 而至於喪亡 豈勝悲痛 其禍專由朝廷無人……嗚呼 國無人焉 則如元氣既燼 百病俱作 雖萬金良藥 莫療必死之人 前車之覆 豈非後車之鑑耶

이제 중국인들이 대명을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이 절실하니 비록 백년 뒤라고는 하지만 어찌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겠는가.⁴⁵⁾

학산은 명나라의 후손이 한 번 외치고 일어서면 천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학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역대에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나라를 예로 들고 있는데, 심지어는 확인되지 않은 전설을 근거로 하여 원나라가 중국을 차지한 예까지 든다. 다시 말하면 오랑캐를 물리치고 중화를 재건하기 위하여 중화를 멸망시키고 오랑캐의 나라를 세운 예까지도 서슴지 않고 드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랑캐가 세운 나라인 원의 중국 지배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마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그가 임경업의 분투와 좌절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러한 명분론적 사고의 연장이다. 그는 임경업의 투쟁을 철저히 명분론적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분투노력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지만 그의 뜻이 어디에 있었지만을 따질 것이요, 일의 성패로 영웅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야말로 조선의 절의를 보여주는 것이요, 천하에 대의를 펴는 일이며, 후세에도 할 말이 있게 하는 커다란 일이라는 것이다. (50화) 이러한 명분론은 특히 노론층의 입장 그대로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4. 結 論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학산 신돈복은 1692년(숙종 18)에 태어나 1715년(숙종 41) 진사가 되어 奉事를 역임하였다. 그는 족보에 의하면 鶴山이라는 널리 알려진 호 이외에도 景軒이라는 호가 하나 더 있다. 그는 1779년(영조 51) 87세로 삶을 마쳤다. 자료

45) 《전집》 302-303면. 蓋中州之爲左衽 雖至百年之久……苟有皇明遺裔 衆所共知者 出而一呼 則今雖百年之後 必有風動而雲集者矣 或曰 自古未有國亡百年 而更興者也 曰 不然 天下事變 有不可以一概論也 劉裕是漢楚元王交之後孫 固太上皇之裔也 元順帝乃宋德祐帝之孫 而其子孫世長沙漠 史臣以爲太祖仁厚之報也 今華人之思大明 若是其切 雖百年之後 安知其不再興也

가 빈약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의고파의 문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저술 중 유일하게 현전하는 『학산한언』은 1759년(영조 35)부터 그가 죽던 1779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그가 젊어서부터 수집한 자료를 편철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언』의 세계는 기이로 가득차 있다. 그는 이른바 怪力亂神은 단지 익숙하지 않은 것일뿐 익숙하게 보면 그것도 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언』의 세계에는 일목국 천홍국 등이 실재하며 귀신과 명당이 엄존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기이의 세계는 人世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氣로 이루어진 세계다.

『한언』에는 이러한 세계의 기이에 어울릴 수 있는 이인과 신선 이야기를 많이 수록하여 놓고 있다. 특히 신선담은 『한언』에서 단일 테마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朝鮮神仙略史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 이인이나 신선은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별종의 인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수련을 통하여 세계의 기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뿐이다.

『한언』은 일상적인 인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명분론에 입각한 이야기 수용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점은 효행담이건 노비담이건 또는 사대부 일화이건 모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의 긴장이 깨어지거나 견강부회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이점은 對明意識에서도 드러난다. 학산은 明과 淸의 교체가 음양변역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면서도 명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명의 부흥을 말하기도 한다.

『한언』은 조선 후기의 야담집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며, 『溪西野譚』이나 『靑邱野談』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점에서 『한언』의 본격적인 연구는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본고에서의 결론이 앞으로의 『한언』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